

大巡思想 研究를 위한 提言

鄭大珍*

I. 들어가면서

우주를 구원해 주시길 大望하는 神聖, 佛, 菩薩들의 하소연으로 九天上帝께서 天地公事로 匡救天下 하시고자 降世하신지 어느덧 126년의 星霜이 흘렀다.

大巡思想은 姜甌山 九天上帝로부터 천부의 계시를 받으신 趙鼎山 道主에 의해 확립되었으며 이를 遺命으로 宗統을 받으신 朴漢慶 都典에게로 이어지는 淵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순사상 연구를 위한 방향과 그 활발한 연구작업을 위해 먼저 사상의 근간이 되는 종단설립당시의 취지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크게는 宗旨 信條 目的으로 나누어지는 대순사상의 체계를 오늘날의 상황에서 이해해보고 이를 토대로 계속적인 연구를 해 나갈 때 하나의 학문적인 정립이 이루어지리라 본다. 무엇보다도 학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

대순진리회 「典經」에 보면 대순사상의 종교적 체계확립이 趙鼎山 道主의 종단설립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을축년(1925)에 구태인 도창현에 도장이 이룩되니 이때 도주께서 무극도(無極道)를 창도하시고 상제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봉안하고 宗旨(宗旨) 및 신조(信條)와 목적(目的)을 정하셨도다」라고 하고 종단의 宗旨를 陰陽合德, 神人調化, 解冤相生, 道通眞境으로 정하였으며, 信條를 安心, 安身, 敬天, 修道의 四綱領과 誠, 敬, 信의 三要諦로서 하고, 목적을 無自欺-精神開關, 地上神仙實現-人間改造, 地上天國建設-世界開關으로 정하였다. 이에 본문에서는 이러한 宗旨, 신조, 목적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개인적 소견을 피력해보고자 한다

*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사장

II. 종지(宗旨)

대순사상에 있어서 종지는 대순진리가 하나의 종교로서 성립하기 위해 제시되어야 하는 사상적 총체를 담고 있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종교가 주창하는 그 사상의 요지를 한마디로 축약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대순사상이 지향하는 이념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다.

흔히 불교의 중심개념을 慈悲라고 하고, 유교의 중심개념을 仁義禮智라고 한 것은 모두 그 종교의 사상을 압축하여 표현한 종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주창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성과가 이루어져 나온 것이 사실이다. 대순사상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존의 종교를 이해하고 내일의 인류의 종교적 이상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모두 종지를 바탕으로 한 활발한 연구작업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순사상의 연구에 있어서 대순종지의 이해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대순종지는 크게 네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陰陽合德·神人調化·解冤相生·道通眞境이 그것이며, 모두가 종지를 구성하는데 있어 하나도 빠트릴 수 없는 고유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다. 오늘날과 같이 다변화되고 각자의 전문성이 고도로 발달된 시점에서는 어느 한 분야의 영역만을 고수할 수는 없으며 먼저 현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데서부터 사상이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다양성을 통일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를 제시하므로써 비로소 그 사상은 나름의 위상을 갖추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순종지에서 표방하는 바도 오늘날의 종교적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를 초극하는 이론을 담고 있어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음양합덕(陰陽合德)

음양합덕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지향해 나가야만 하는 이상향에서의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인류가 겪고 있는 현실을 말하자면 무엇보다도 사회구성원간의 반목과 쟁투 그리고 환경오염,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 부도덕과 부조리가 판치는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보는 것이 통례이다. 이러한 상황의 초래는 전적으로 인간의 무분별한 사고와 상호관계에 있어서의 적대감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인류의 미래는 반목과 쟁투가 없는 무한히 풍요로운 삶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 세계를 이끌어 가는 원리가 바로

음양합덕인 것이다.

대순진리회 『典經』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뻗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
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공사 1장3절)

즉 이 세상은 이때까지 상극(相克)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어 오므로써 오늘날
의 모든 위기상황이 초래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사회구성원간의 대립은 물론이
고 자연파괴와 이에 따른 환경오염 자연재해등 제반 현실의 문제는 모두 상극원
리가 지배되어 온 탓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세계가 상생의 원리에 의
하여 새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구천상제의 대순하신 진리
라고 할 수 있다. 음양합덕은 이렇게 상생의 원리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모든 만
물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의 통일된 원리로 생활해 나가는 이상을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물로써 말하면 손바닥은 음 손등은 양, 서책의 표지는 양
내면은 음, 晴天은 양, 雨天은 음이며, 서로 다른 사물로써 말하면 하늘은 양 땅
은 음, 해는 양 달은 음, 남자는 양 여자는 음인 것과 같다. 이러한 음양이 서로
의 덕성을 화합시키는 것이 바로 음양합덕이며 가까이로는 부부의 관계에서부터
멀리는 천지 우주에 까지 이르는 대화합의 원리인 것이다. 하지만 이 세계가 아
직 진정한 음양합덕을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앞서 말한 상극의 원
리에 따른 결과이며 따라서 진정한 음양합덕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생의 원리에
입각한 풍요로운 세계가 주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존재도 상극적
인 현실에서 겪어야만 하는 소외된 삶이 아닌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도 바로 음양합덕이 된 세계속에서 가능하다. 이때는 천지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며 만물이 사람을 위해서 그 혜택을 주는 진정한 인간존중의 시대가 될
것이다.

한편 역학에서는 이러한 음양의 관계를 대대성(對待性)의 원리로서 보고 있
다. 음과 양의 관계라는 것이 서로 극단적으로 성질을 달리한다고 해서 상호대

립하고 서로를 적대시 여기는 것은 잘못이며 서로 보완하는 관계 또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로서 보고자 한다. 즉 ‘서로 대립하면서도 서로 의존하는 관계’, ‘서로 반대되는 상대가 존재해야 비로소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품은 관계’이다. 이는 마치 남녀에 있어서 부부사이와도 같다. 서로의 체질과 성격이 틀리더라도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또한 어느 한 쪽의 장단점이 상대에게 있어서 보완이 되며 그리하여 어느 한 쪽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을 같이 만나서 하므로써 이루어 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서로의 덕을 합하므로써 새로운 조화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오늘날의 대립적인 사고를 극복하고 인류의 바람직한 이상 사회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요도가 있다 하겠다.

2. 신인조화(神人調化)

음양합덕의 기초위에서 이루어진 세계는 또한 이를 이끌어 나갈 확고한 법칙이 서야 한다. 그것은 상생원리를 바탕으로 한 윤리도덕관의 새로운 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종교가 인류의 바람직한 삶을 위해 제시하는 수많은 가르침을 펴고 있지만 날이 갈 수록 윤리 도덕관이 황폐화되는 현상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종교적 태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조건 우상화되고 절대화되고 관념화된 거짓하늘에 대한 종교적 투사보다는 참하늘에 대한 바른 관계의 수립이 선행되어야만이 오늘날의 상극상을 종식시키고 그 종교적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신인조화가 강조하고 있는 바는 바로 이러한 올바른 신인관계를 알아서 참된 윤리도덕관을 정립하는데 있다.

신인조화를 이해하는 대체적 관점을 말한다면 먼저 신은 진리의 표준(또는 기준)이며 인간은 그 진리에 합치될 수 있는 가능성적 존재라는 점이다. 이는 신과 인간을 하나의 근본에서 부터 바라보는 것이며 신의 일이나 인간의 일이 존재방식은 다르나 그 이치는 같다는 시각에서 논의되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신을 이해하는 것을 인간 초월적이며 신비적인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인류가 합치되어야 할 이상적 질서체계라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음양합덕의 원리에 의해서도 이해할 수 있듯이 이 우주가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인

간의 세계는 신의 세계와 서로 음양의 관계에 있는 것이며 인간세계의 질서는 곧 신의 세계의 질서와 합치되어 운행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한 것이다. 이러한 신관에 입각해서 보면 인간의 세계를 대하듯이 신의 세계를 상정해 볼 수 있으며 신의 세계에서도 인간세계와 마찬가지로 그 주재자가 있으면 그 밑에 수많은 군신(群神)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신인조화의 관점이다. 그런데 우리가 신을 진리의 표준으로 이해할 때 신의 세계의 질서는 인간세계와 달리 아주 엄격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형성된 神道는 인간의 모든 예법과 도덕성을引出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역대 聖人이 만든 모든 예법은 모두 다 신도에 근거한 가르침을 받들은 데서 연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질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아닌 인간이 지니고 있는 마음(心)에 있다 할 것이다. 『典經』에 따르면 『마음이라는 것은 귀신이 드나드는 추기이며 문호이며 도로이다. 추기를 열고 닫고 문을 들락날락하며 길을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신이다. 혹은 선한 것도 있고 혹은 악한 것도 있으니 선한 것은 스승으로 삼고 악한 것은 고쳐서 쓰게 되니 내 마음의 추기와 문호와 도로는 천지보다도 크다』 (행록 3/44)라고 하여 인간의 마음을 신과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인간의 본질은 마음에 있는 것이며 그 마음은 선과 악을 판단하여 운용할 수 있는 자율권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신의 의지가 아무리 올바르다고 하여도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주체는 인간에게 달린 것이며 따라서 오늘날 현대 문명의 위기와 도덕적 타락은 모두 인간의 자율의지가 신의 진리성에 부합되지 못한 데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존재의 본질이 마음에 있다면 그 마음은 신과 합치 될 수 있는 장으로써 신성(神性)을 담는 것이며, 이러한 神性이 善으로 발휘해 나갈때 머지 않은 장래에 인류의 이상사회는 善으로 충만한 사회가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인간의 종교적 실천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데서부터 행위하여야 하며 이를 잘 다스려 나가는 것이 곧 신의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한다.

신인조화(神人調化)란 말하자면 신과 인간이 이러한 일체(一體)-일본(一本)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하고 그 주체가 되는 마음을 인간이 선(善)의 의지에 의해 잘 다스려 나가자는데 핵심이 있다. 이것은 또한 기존의 종교가 지니는 현실부정 혹은 도피적인 부분을 극복하고 현실속에서 그 종교적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요도(要道)가 되며, 신과 인간이 별개가 아닌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설명하는 이상적인 종교적 이해라 하겠다.

3. 해원상생(解冤相生)

해원상생은 대순사상의 실천윤리에 있어서 대강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뜻을 말하자면 먼저 신명과 신명, 국가와 국가, 개인과 개인간의 맺힌 원한을 풀고 그렇게 하므로써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윤리적 이상이 실현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해원상생의 사상은 오늘날 극도의 개인주의적 사고와 이에 따른 윤리도덕의 부재현상을 해소시키고 나아가 새로운 윤리도덕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우리 인류사회는 선악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상호 공생 공존하기 위한 몸부림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윤리적 바탕은 ‘相克’이라고 하는 ‘相互克害’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비록 양적인 성장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상호 ‘원한’이 쌓여 각종의 재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 여기에 기성종교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불교에서 강조하는 大慈大悲의 사상이나 유교의 仁思想이나 그리스도교의 博愛相信의 이념은 모두 선악이 공존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 속에서 인류를 共生 共存시키기 위하에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도달할 수 있는 정신적 경지는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종교가 담당하는 사회적 역할면에서는 그렇다. 그리하여 오늘날 종교의 분파는 수없이 많아지고 그 사상에 대한 연구업적도 지대하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오늘날 사회는 그다지 종교적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변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즉 인간의 욕망은 끝없이 커져만 가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문명도 물질에 치우쳐 인간정신의 소외현상을 낳고 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국가와 국가, 개인과 개인은 자기 생존을 위해 끝없이 경쟁하고 있으며 따라서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상극적(相克的) 윤리가 범람하므로써 사회적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된 현상의 원인을 밝힌다면 그것은 기존의 기성종교의 종교적 이념이 복잡다단한 상호관계속에서 이루어진 현실적 상황을 도외시한 채 진행되어 나왔으며, 오늘날 경쟁하는 사회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대적 패배감과 이와 아울러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욕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새

로운 가치관을 제시해 줄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회적 혼란과 윤리도덕의 부재현상을 야기시키게 한 근본적 원인을 추리해 볼 때 그것은 곧 욕망을 채우지 못한 인간이 서로에게 원한을 품고 상극적으로 관계해 온데 주 요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을 가져다 주고 우리사회를 근본적으로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사상이 바로 해원상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과 관련하여 원이 맺히게 된 최초의 사건은 정권쟁탈에 있었다. 『典經』을 살펴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4천여년전 동양의 聖君인 堯임금은 왕위를 그의 아들 단주에게 물려주지 않고 효행이 뛰어난 순에게 물려주게 되며 이로 인해 왕위를 물려 받지 못한 단주는 원한을 품고 순을 창오에서 붕케 하고 두 왕비마저 소상강에 빠져 죽게 하였다. 이로써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할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입각하여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행하여 진 것이 바로 구천상제의 천지공사이다.(공사 3장4절) 이 천지공사의 본령은 해원을 위주로 하여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 이것을 이룩하므로써 지상선경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원의 의미속에는 인류의 이상사회를 이룩하는 초석이 될 수 있는 사상을 담고 있으며 모든 종교사상을 포괄할 수 있는 포용력 또한 지니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상생(相生)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는 근래의 환경윤리학에서 일컫는 공생윤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즉 공생윤리란 오늘날과 같이 제한된 자원과 대자연의 생태계 파괴에 따른 위기상황 속에서 이를 공동대처해 나가기 위한 데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서로 감정이 안좋은 사람끼리라도 그 감정을 감추고 억지로 더불어 사는 것을 일컫는 개념이다. 이에 반해 상생윤리란 무한히 풍요로운 환경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동경하면서 마치 모자지간과도 같은 사랑을 누구나 나누면서 같이 사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공생의 윤리는 여전히 상극적 원리가 지배하는 현실속에서 행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자구책에 해당한다면 상생윤리는 오로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풍요로운 환경속에서 서로를 자애하는 윤리적 이상인 것이다.

인류가 살아온 역사는 주로 상극의 이치에 입각하여 전개되어 왔으며 인간 상호간의 관계도 상극적 윤리에 의하여 지배되어 오늘날과 같은 윤리적 타락상황을 보게 되었다. 대순사상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윤리도덕의 부재현상을 해소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생의 도를 세워서 인간상호간의 새로운 윤리적 관계를 정립시켜 나가는 것이 이상사회건설의 실천원리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에 해원상생의 이념은 우리 인류에게 윤리적 실천방향의 일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내일의 이상사회건설을 위한 인간의 실천적 노력에 있어 전제조건이 된다. 구천상제의 천지공사는 바로 이러한 해원상생의 이념에 입각하여 전개되었으며 그 범위는 실로 전 우주적인 측면에 까지도 확대되는 보편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도통진경(道通眞境)

도통진경은 대순사상이 목적하는 바의 궁극적 이상향을 가리키는 말로써 ‘도를 통한 참다운 경지’라는 뜻이다. 이는 개인의 理想임과 동시에 우주전체의 이상향을 설명하는 말로서 이해할 수 있다. 흔히 도통이라 함은 기이한 일이나 異蹟을 행하고 자연의 조화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신통력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는 주로 참된 진리를 正覺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또는 인류사적으로 온전히 구현시켰을 때 이를 수 있는 이상적 사회상을 일컫는 말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그리하여 각각의 종교에서 일컬어져 왔던 이상과 그 목적하는 바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은 모두 이 도통진경이라는 말속에 다 내포되어 있음을 알고 이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목적하는 바의 이상향을 설정하고 있지만 크게는 불교에서와 같이 인간정신의 해탈을 추구하는 정신적 면의 이상과 유교에서와 같이 현실적 삶의 이상으로 각각 대별될 수 있다. 즉 현실적 삶의 고통을 피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현실에 치우쳐 그 안락된 삶을 추구하는 등 그 종교가 바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 지향하는 바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오늘날 도통진경의 의미가 새롭게 부각될 수 있다. 그것은 기존의 종교가 현실사회에 비추어 크게 대별되어 말해왔던 이상사회를 오늘날 인류가 처해있는 다원화된 사회속에서 모두 수용하여 크게 이루어야만 될 사명을 안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도통진경의 의미는 정신과 물질의 조화, 현실과 이상의 합치라는 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인류의 이상사회는 단지 물질적 측면의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는 것으로만 달성될 수 없으며 이와 아울러 인간정신이 고도로 성숙된 경지를 같이 이룩한 사회를 말해야 한다. 대부분의 성자들이 낙원에 대한 가르침을 퍼 왔지만 그 낙원이나 천국은 먼 하늘위나 서쪽 어느 곳 그리고 죽고나서나 갈 수 있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현실과 계리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측면만 계속 강조해 나간다면 오늘날 복잡다단한 현실사회속에서 종교가 담당해야만 하는 역할이 쇠퇴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인류의 이상은 현실속에서 이상을 구현하는 것이며 그것은 다름아닌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조화, 종교와 과학의 만남이 이루어진 이상향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도통진경의 실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이는 다른 말로 후천선경이라고도 하며 그 내용은 전경을 토대로 살펴볼 수 있다.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합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 (예시 80절)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지방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 (예시 81절)

이상의 전경구절을 통해 살펴볼 때 대순사상에 나타난 도통진경으로서의 후천세계는 인간이 누리는 물질적 환경에서의 이상적 경지를 말하고 있음과 동시에 인간정신의 성숙이 또한 고도의 경지를 이루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인간을 둘러싼 자연환경도 인간의 생활에 아주 적합한 상태로 변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이는 가히 地上仙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이상사회라는 것이 단지 물질에 치우치는 것만도 아니며 정신적 초월만을 강조하는 것도 아닌 정신과 물질이 조화되어 고도의 성숙된 경지를 구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하늘과 땅, 사람이 일체가 되어 고도의 통일문명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 우주적 차원의 이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인류가 바라는 이상사회가 실제로 하늘과 땅 사람을 두루 관통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때 각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모두가 진리로서의 도에 다 통하는 그러한 진경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곧 도통진경의 교의라고 하겠다.

Ⅲ. 신조(信條)

앞서 말한 종지가 대순사상의 이념적 총체를 나타낸 것이라면 신조는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방법론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는 구체적으로 四綱領과 三要諦로 나눌 수 있는데 綱領이란 구천상제의 대순하신 진리를 실천수행하기 위한 훈전(訓典)이 될 수 있는 대원칙을 말하며, 要諦란 실천수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몸에 갖추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자세에 해당된다. 四綱領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安心·安身·敬天·修道가 있으며, 三要諦로서는 誠·敬·信을 들 수 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강령(四綱領)

(1) 안심(安心)

마음(心)이란 사람의 행동·기능을 주관하는 무형의 본체이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 편벽됨이 없고 사사로움이 없이 진실하고 순결한 본연의 양심으로 돌아가서 허무한 남의 꾀임에 움직이지 말고 당치않는 허욕에 정신과 마음을 팔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기대하는 바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항상 마음을 안정케 하여야 하는 것이 곧 安心의 강령이다.

본래 마음은 한 몸의 주(主)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람의 모든 언어, 행동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크게 나누어 良心과 私心の 두가지가 있는데 이때 양심은 天性 그대로의 本心을 말하며 사심은 물욕에 의하여 발동하는 욕심에 해당된다. 그런데 人性的 본질은 양심이라고 하지만 사심에

사로잡혀 도리에 어긋나는 언동을 감행하게 되므로 사심을 버리고 양심인 천성을 되찾기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써 진정한 안심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마음이 본연의 양심으로 돌아가 안심을 이루게 되면 당치않는 허영에 경거망동하지 않을 것이며 구천상제의 대순하신 진리를 올바르게 펼쳐나갈 수 있게 된다.

한편 안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 또는 도리를 다했을 때 가능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직분을 등한시하고 성실히 수행해 나가지 못하는 때에는 그 마음이 불안해지게 될 것이며 스스로의 양심에도 부끄러움이 생겨 진정한 안심이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심의 강령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는데서부터 행해나가야 할 것이며 이것이 곧 진리를 터득할 수 있는 요도이기도 하다.

(2) 안신(安身)

마음이 一身의 주라면 몸은 곧 마음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강령으로서의 安身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행동을 법례에 합당케 하며 도리에 알맞게 하고 의리와 예법에 맞지 않는 허영에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安身은 安心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安心을 이루게 되면 安身은 절로 이루어 질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여 마음의 안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몸도 편안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실천수행에 있어 안심·안신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典經』을 보면 “병은 자기로부터 발생한다(病自己而發)(예시 36절)”라고 하고 “대병지약(大病之藥)은 安心·安身이다.(행록 5장38절)”라고 하였다. 一身의 비정상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病은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형성되는 것이며 이는 곧 심신의 불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병이라는 것도 아주 큰 병은 내면의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며 이러한 병을 치료하는 것은 오직 안심·안신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3) 경천(敬天)

敬은 '내면을 바르게 하여 공경한다'의 뜻이며 天은 神의 대명사로서의 개념이다. 그리하여 '敬天한다'는 것은 종교적 신앙의 대상인 구천상제를 위시하여 모든 신적 존재를 공경하여 올바르게 신앙해 나갈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대순진리회 요람에 따르면 이러한 敬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모든 행동에 조심하여 상제님 받드는 마음을 자나깨나 잊지말고 항상 상제께서 가까이 계심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여 오직 구천상제에 대한 순일한 신앙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곧 상제를 畏敬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있어 늘 부족할까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모든 종교의 개념에서 빠트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초월적 절대자에 대한 상정과 귀일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순종교사상의 신앙적 태도는 구천상제의 권능과 그 役事에 대한 믿음에서 연유되므로 구천상제에 대한 공경과 정성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 경천의 강령이다.

神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참다운 종교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때 神은 인간 초월적이면서 인간의 내면적인 심성으로 확인될 수 있다고 보아 敬天의 자세는 항상 神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에서 나올 수 있다. 그리하여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신적 존재를 대하고 이러한 신의 대명사로서의 天은 구천상제의 위격과 동일시하여 참다운 신앙심을 고취해 나가는데 敬天의 목적이 있다하겠다.

(4) 수도(修道)

'修道'의 강령은 구천상제의 대순하신 진리를 실천수행하는 사람의 몸에 구현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마음과 몸을 침착(沈着)하고 잠심(潛心)하여 상제를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정신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정신이 모여져서 육체적인 부분에 까지 연마가 될 때 정신과 육체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다른 말로 '靈通의 통일'이라고도 하며 이를 목적으로 구천상제를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일념을 스스로 생각하여 끊임없이 잊지않고 지성으로 실천수행해 나갈 때 비로소 '修道'의 자세가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수도는 마음의 정심(正心)과도 관련이 있다. 즉 인간이 본래 태어날 때

는 어떠한 사욕이 없는 청정무구한 본연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으나 자라나면서 환경의 영향이나 물욕으로 탁해지는 것은 모두가 인간 본래의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을 수도를 통해 바른 모습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또한 인간의 종교적 사명이라고도 하겠다. 흔히 수도는 ‘고행의 길’이라고도 한다. 허나 오히려 수도를 떠나서 겪어야 하는 세속의 모든 번뇌와 탐욕 그리고 고통의 상황은 종교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는 더욱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 그리하여 오히려 正心으로 향해 나아가는 수도의 길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 희망찬 본래의 삶을 보여주는 것임을 말하고자 한다.

수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수심연성(修心煉性)과 세기연질(洗氣煉質)을 들 수 있다. 수심은 자신의 때묻고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아 相生의 새 기운을 채우는 것이며 연성은 인간본래의 청정무구한 본성으로 귀일하도록 성품을 연마하는 것이다. 세기연질이란 인간의 형상적 기질이 흐르기 쉬운 개별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을 극복하고 우주의 가장 바른 원기(元氣)로서 채워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인간의 심성과 기질을 바로 잡아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하였을 때 상제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나오게 됨은 물론이다. 나아가서 수도란 구천상제를 위시한 모든 신적 존재에 대해 영시(永侍)하고 불망(不忘)하는 자세를 갖추어 이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도 하겠다.

이상의 네가지 강령을 통해 볼 때 이는 모두 구천상제의 대순하신 진리를 실천수행하기 위해 요청되는 훈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나와 구천상제와의 사이에 대월(對越)할 수 있는 요도이기도 하다.

2. 三要諦

삼요체는 모두가 대순진리를 실천수행하기 위해 마음으로 갖추어야만 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다. 그 핵심이 되는 것으로 誠·敬·信을 말한 것은 모두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본체와 관련되는 것으로 이를 바르게 유지해 나가고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그 각각의 개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誠)

성의 사전적 개념은 ‘진실로’ ‘참으로’의 뜻을 지니는 추상적 가치를 가리킨다. 이때 추상적 가치라 함은 실재 사물의 구체적인 현상을 말할 수 없는 내면의 자각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주관적인 인식이 개입되어 있다. 그리하여 주관이 느끼고 깨달은 바를 가지고 내면의 마음에서 부터 거짓됨이 없이 행동하여 나올 때 이를 두고 誠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儒敎 경전인 『中庸』에서는 이러한 성에 대하여 말하기를 “誠이란 하늘의 道이며 誠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道이다.”라고 하여 성을 천도에 비유하고 사람은 이러한 천도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적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허나 굳이 천도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인간은 본래적으로 내면의 ‘참됨’을 지녀 왔으며 이를 자각하고 어떤 사사로움이 없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자 할 때 誠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大學』에도 보면 “이른바 그 뜻을 정성(誠)스럽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니 악을 미워하기를 악취를 미워하는 것과 같이 하며, 선을 좋아하기를 호색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誠이란 어떤 가식됨이나 망령됨이 이 없는 그 본래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간본연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본체를 자각하게 되면 이는 바로 하늘의 이치와도 통하는 것이며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 또한 사람이 가야 할 길이다. 조선시대 유학자 이율곡은 “성이란 하늘의 진실된 이치이며 마음의 본체이다”라고 하여 하늘의 이치와 사람마음의 본체가 誠으로써 서로 통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誠을 지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식되지 않고 본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誠에 관하여 대순진리회 요람의 설명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즉 ‘도가 곧 나요, 내가 곧 도라는 경지에서 심령을 통일하여 萬化度濟에 이바지 할지니 마음은 一身을 주관하며 전체를 통솔 이용하나니 그러므로 일신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은 오직 마음에 있는 바라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이니 정성이란 늘 끊임이 없이 조밀하고 틈과 험이 없이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름이다.’라고 하여 道(진리)로서의 마음이 끊임이 없고 부족함이 없게 우러나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하여

도로써 통일된 심령으로 하여금 만물을 제도할 수 있는 경지에 까지 이르렀을 때 誠은 비로소 그 본래의 의미를 드러내게 된다.

(2) 경(敬)

경은 ‘공경(恭敬)’ ‘경건(敬虔)’ ‘삼가함’의 뜻을 지닌다. 경의 이러한 표면적인 뜻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그것이 지니는 가치의 측면이다. 즉 동양고전인 『周易』에 보면 “敬으로써 안을 바르게 하며 義로써 바깥을 다스린다.(敬以直內義以方外)”라고 하여 敬은 ‘안’ 다시말해서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수행자의 자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誠과 비교해 볼 때 誠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기 위한 지점이라면 敬은 노력을 들여나가는 과정의 요체라고 하겠다. 그리하여 내면의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몸가짐을 삼가히 하고 조심하며 엄숙한 장소에서 몸을 경건히 하는 일체의 자세가 다 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敬이 몸가짐을 삼가하는 자세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경은 또한 禮와도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예라는 것은 일체의 언사 행동에 있어 절도를 지켜나가는 것이므로 禮를 행하는 근본된 자세는 다름아닌 敬에 두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 갖추어 나가는 다양한 예의범절은 모두 경을 토대로 하여 표출되는 것이며 경이 내포되어 있지 않은 예란 허례허식에 불과할 따름이다. 내면의 공경하는 마음이 겉으로 예로써 표출되어 나오는 한결같은 마음이 바로 경이라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주자는 “敬이란 몸과 마음이 숙연하고 표리가 한결같음”이라고 하여 내면의 마음과 외면의 몸이 모두 숙연함으로 일체가 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대순진리회 요람에 의하면 “경은 심신의 움직임을 받아 一身上 예의에 알맞게 행하여 나아가는 것을 경이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敬은 몸과 마음에 있어 표리가 일치하는 바른 예의 자세를 가져다 주는 요체이다.

(3) 신(信)

信에 관하여는 요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 마음을 정한 바엔 이익과 손해와 邪와 正과 편벽과 의지로써 바꾸어 고치고 변하여 옮기며 어긋나

차이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하며 하나를 둘이라 않고 셋을 셋이라 않고 저것을 이것이라 않고 앞을 뒤라 얹으며 만고를 통하되 사시와 주야의 어김이 없는 것과 같이 하고 만겁을 경과하되 강하와 산악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하고 기약이 있어 이르는 것과 같이 하고 한도가 있어 정한 것과 같이 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며 정성하고 또 정성하여 기대한 바 목적에 도달케 하는 것을 신이라 한다.」 즉 信의 요체를 지닌다 함은 첫째 마음의 정한 바를 어떠한 사사로운 욕심에 의해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이러한 마음을 지속시켜 기대한 바 목적을 꼭 달성케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대순사상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마음의 정한 바란 다름아닌 구천상제에 대한 영시(永侍)의 정신을 확립하여 나와 구천상제 사이의 불변하는 믿음의 관계를 정하는 것이다. 대순진리회 『전경』에 보면 “너희들이 믿음을 나에게 주어야 나의 믿음을 받으리라”(교법1장5절)라고 하여 먼저 구천상제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구천상제의 대순하신 진리를 자각하고 강세하신 강증산이 구천상제임을 믿는 것은 곧 대순사상의 핵심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기대한 바 목적을 꼭 달성케 한다는 것은 구천상제의 대순하신 뜻을 이어 받아 실천수도하여 ‘영통’ 또는 ‘도통’이라고 하는 수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과정에는 으레히 환경의 변화나 사사로운 욕심따위로 인해 마음의 정한 것이 흔들리는 어려움따위를 예측할 수 있지만 그 정한 것을 확고히 하여 결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했다면 이때 비로소 그 믿음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信의 요체란 내면의 일정함이 행동에서 나타나 결과적으로 목적을 달성케 하는 수행자의 자세라고 하겠다.

이상으로 살펴본 삼요체는 대순진리의 실천수행에 있어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는 마음의 자세이다. 나아가 이러한 삼요체는 사강령과 더불어 대순사상의 이념을 달성할 수 있는 수도의 방법이 되고 있다.

IV. 목적(目的)

앞에서 종지의 이념을 근간으로 수도의 방법인 신조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순진리를 실천수행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말한다면 그것은 첫째, 무자기(無自欺)를 통한 정신개벽(精神開闢)과 둘째 지상신선실현(地上神仙實現)을 통한 인간개조(人間改造) 그리고 세째로 지상천국건설(地上天國建設)을 통한 세계개벽(世界開闢)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무자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는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그 본원은 마음을 속이지 않는 진실된 자아를 실현하는데 있다. 앞에서 살펴본 誠의 요체에서 살펴보았듯이 마음은 一身의 주이며 사람의 모든 언어행동이 곧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인성의 본질은 양심인데 항상 사심에 사로잡혀 도리에 어긋나는 언동을 감행하게 되므로 사심을 버리고 양심인 天性을 되찾기에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대순사상의 첫째 목적은 이러한 마음을 항상 양심에 입각하여 실천수행해 나가므로써 인간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나아가 오늘날 물질문명에 의해 타락된 우리 인간의 정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개벽하는데 목적이 있다.

둘째, 지상신선실현이란 정신개벽을 통해 이루어진 인간본연의 모습이 현실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제반의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인간의 육체에 있어서도 일체로 통일되어 새로운 인간모습을 실현시키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의 우리 인간의 모습은 지대한 과학적인 업적에 힘입어 고도의 편리성을 추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성은 주로 물질문명에 치우쳐 인간의 교만을 조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간으로써 지켜야 할 윤리도덕은 상대적인 타락을 야기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의 모든 위기상황은 그 인간정신의 나약함과 물질적인 욕심에 치우친 것으로 보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순사상의 역할은 현대의 인간이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기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인간개조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세째, 지상천국건설이란 이러한 새로운 인간이 건설해 나가는 미래의 인류사회를 지칭하고 있다. 과거의 냉전체제에서나 동서이데올로기의 대립 또는 저개발국과 선진국사이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은 인류의 이상사회를 건설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세계는 과학 정보 통신문명의

발달로 인해 더 이상의 단절된 세계란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편으로 지구촌 문명을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입각해 볼 때 미래의 이상사회는 새롭게 개조된 인간이 주도가 되어 건설해 나가는 정신과 물질의 고도의 풍요로운 사회이어야만 할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지상선경(地上仙境)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곧 지상천국의 건설이라고 하는 대순사상의 목적으로도 나타난다. 그리하여 온 세계가 한 집안이 되어 법리에 맞는 조화로운 정치를 하고 개개의 인간은 어떠한 원율과 탐음의 번뇌가 없는 평안을 구가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인간의 지혜가 고도로 성숙된 세계를 건설하므로써 이 세계는 또 다른 차원으로 개벽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대순사상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해당된다.